

‘사료피 우량계통 현장 평가회 및 수확 연시회’ 개최

- 사료피 재배 기술 교육…논에서도 안정적인 하계 풀사료 생산 가능
-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사료피 재배 확대, 농가 소득 증대와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8월 28일 경남 진주 시험 재배지에서 경남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 조사료 경영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피 우량계통 현장 평가회 및 수확 연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국내 육성 사료피 우량계통의 생육 상황과 조사료 생산성 등에 대한 현장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농가 대상 사료피 재배 및 이용 기술 교육, 헤일리지 제조 과정 시연 등도 진행한다.

‘사료피’는 습해에 강해 논 재배 적응성이 우수한 사료작물이다. 줄기가 가늘고 잎이 풍성해 사료 가치가 높고 생육 중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 사료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트리티케일) 수확기계로도 작업할 수 있어 농기계 활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반면, 아직 생산성 높은 풀사료 전용 품종이 없어 식용 품종과 재래종이 유통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여름 풀사료를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논 재배 적응성과 생산성이 우수한 사료피 우량계통을 육성했다.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올해 품종보호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자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논 하계 풀사료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습해를 입기 쉬워 논 하계 풀사료 재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전략작물직불제 정책과 연계해 사료피 재배를 확대하면, 장마철 습해에도 논에서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이 가능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료피 품종 개발과 현장 보급을 통해 풀사료 수입 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료피 우량계통 현장 평가회 및 수확 연시회 개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사	최보람 (041-580-6743)

사료피 우량계통 현장 평가회 및 수확 연시회 개최(안)

□ 추진 목적

-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논 하계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재배면적 확대
 - 국내육성 사료피 우량계통 현장 평가 및 수확 시연을 통한 홍보

□ 행사 개요

- 일 시: 2024. 8. 28. (수) 14:00 ~ 16:00
- 장 소: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820-4
- 참석인원: 약 100명 내외
 - * 농촌진흥청, 경남농업기술원, 시·군센터, 지역 농·축협, 조사료 경영체 등
- 주 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공 동: 경남농업기술원, (사)한국조사료협회
- 주요내용
 - 사료피 품종개발 연구현황 및 재배·이용기술 소개
 - 경남지역 사료피 현장실증 농가 사례 발표 * 농가 경영체 대표
 - 사료피 수확 및 헤일리지 제조 현장 시연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0	30'	등록
14:00~14:10	10'	개회 및 행사 안내
14:10~14:20	10'	인사말
14:20~14:40	20'	농가 사례 발표(사료피 현장실증) * 농가 대표
14:40~15:00	20'	사료피 품종개발 연구현황 및 재배·이용기술 소개
15:00~15:30	30'	사료피 수확 현장 시연
15:30~16:00	30'	질의응답 및 폐회